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11. 30.(목)

한덕수 총리, 경상북도 경주시 지진으로 위기경보 '경계' 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지시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(11월 30일)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'경계' 단계* 가 발령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.

* ▲규모 4.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 V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▲'경계' 및 '심각'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시 발령

-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,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, 예·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·대비할 것
- 산업부 장관, 과기부 장관, 국토부 장관은 원전, 전기, 통신,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,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
- 문체부 장관,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·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
- 특히,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·역할을 점검하고,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·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
